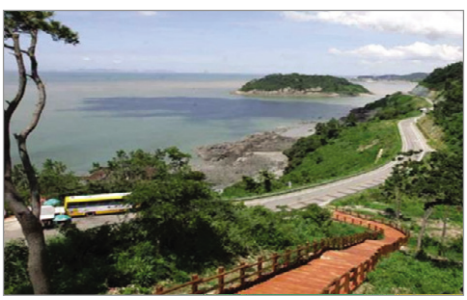
디자인 명품도시 창조를 꿈꾸는 '천년의 빛' 영광

Glory 영광, 대한민국 1등군 영광

전라남도 북서쪽에 위치한 영광군은 예로부터 산수가 아름답고, 인심 좋고, 살기 좋은 곳으로 '옥당골' 이라 불렸으며, 친환경적 농어촌 경관과 색다른 자연의 멋을 느낄 수 있는 고장이다. 최근 이 인구 6만의 소규모 군이 변화하고 있다. 자연의 위대함은 신이 창조하지만, 도시의 아름다움은 사람이 소중하게 가꾸어 나가야 한다는 공감 속에 시작된 공공디자인 사업이 '영광' 을 크게 변화시키고 있다.

광활하게 펼쳐져 있는 세계 5대 청정 갯벌과 수려한 자연경관, 낭만적인 노을 등의 자연환경과 서해안 고속도로를 통하는 전남의 첫 관문지인 영광. 영광군은 "Glory 영광, 대한민국 1등군 영광" 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지역특색에 맞는 사람 중심의 편리성과 조화성, 안전성, 도시미관을 살린 군을 만들고자 도시녹색 5개년 계획을 수립 · 시행하고 있다.

'디자인 명품도시 만들기' 추진



영광 백수해안도로 노을길(2.3㎞) 및 노을 광경

그 첫 번째가 영광 백수해안도로 노을길(2.3㎞) 및 노을전시관 조성사업이다. 총 길이 16.8㎞에 이르는 백수해안도로는 석양이 가장 아름답게 보이는 곳으로, 인근에는 관광휴양단지인 해수온천랜드, 칠산 전망대, 영광 칠산도 괭이갈매기 · 노랑부리백로 · 저어새 서식지, 모자바위 · 거북바위 등 기암괴석과 해수찜이 있는 대표적인 관광명소다. 영광군은 지리적 · 지명적 특성과 차별화를 위하여 전국 최초로 석양노을을 테마로 하는 노을전시관을 완공하여 야간경관을 형성, 지역의 상징성을 높였다.

도로변 경관이미지 개선 및 아름다운 거리

2012년 도시대상-선도사례부문 국무총리상

국제공공디자인 공모대상

향화도 바다매체 타워 우수상

대상-선도사례부문' 국무총리상, '2012 대한민국 디자인대상' 지식경제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지난해에는 국토해양부 주관 '제1회 대한민국 경관대상'에서 자연경관분야 전국1위로 최우수상, 행정안전부 주최 '2011 국제 공공디자인 대상'에서 영광군 문화예술회관과 영광바다매체타워(111m)가 각각 대상과 우수상 수상, 전라남도 주관 '시·군 경관행정 종합평가'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앞으로 나아갈 길

영광군의 디자인 명품도시로의 발전은 지자체의 일방적이고 단순한 자원투입 형태의 관광지 조성에서 벗어났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 스스로 마을을 살리고 천연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관광자원을 구축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사업으로 함께 도모한 점에서 타 지자체와 차별성을 두었다. 또, 디자인을 위한 디자인에서 벗어나 지역적 자연경관과 주민참여를 함께 고려한 디자인 정책 추진으로 소규모 군에서도 창조적인 디자인 구축이 가능하다는 큰 시사점을 남겼다.

앞으로도 영광군은 미래를 향한 도시디자인에 심혈을 기울여 자연 친화적이고 지역특색을 살린 디자인 정책을 시민과 함께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친환경 명품 디자인도시를 창조해 나갈 계획이다.

김유종
영광군청 도시디자인과 주무관
kyj1125@korea.kr